

# 술한 애기꽃 피우려 마을로 간 '대간'



(5)

## 정령치 → 북성이재

지리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한창의 내리막길을 만들어 허리를 낮춘다. 그리고는 다시 고리봉(1,304.5m)을 향해 허리를 곧추세우기 전에 잠시 다리쉬임을 한다. 그 틈에 고개 하나가 대간을 가로지르니, 그곳이 바로 정령치(正嶺峙, 1,172m)이다. 남원과 지리산의 심원마을을 잇는 고개로, 서산대사의 황령암기(黃嶺巖記)에 의하면 기원전 84년 마한의 왕이 진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 정장군으로 하여금 고개를 지키게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사** 람이 그리운 걸까? 고리봉을 넘어선 백두대간은 도무지 대간의 등마루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경지로 몸을 바꾼다. 고촌, 주촌, 가재로 이어지는 마을을 지나며 이집 저집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기도 하고, 학교를 파한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해탈을 부리는 아이들의 틈에 끼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가재 마을에서부터 백두대간은 다시 산을 오른다. 그러나 넉넉 곡대기를 향하지는 않는다. 범접하기 힘든 위업을 갖춘 우람한 소나무 사이로 산상을 모셔둔(비석) 것이다. 산악신앙의 한 보기라고 스택버리기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산 자체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미끈 미끈한 그대대로 전해온다. 이에 비하면 대항생산이라는 마을에 걸린 오늘날의 농업이나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자연에 대한 테러에 가깝다 하겠다.

가재마을에서 수정봉(804.7)을 지나 고남산(846.4)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오른쪽으로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펼쳐져 있다. 운봉! 이름만 들어도 한 무리의 구름이 눈에 어른거리는 듯한 바로 그 고을이다. 고안에 자리잡은데다 새결산, 바래봉, 덕두산의 줄기를 병풍처럼 두른 탓에 어서지 곧잘 구름으로 하늘을 삼는다.



고남산에서 바라본 운봉의 아침. 이내처럼 마을을 덮은 구름이 '운봉'이라는 이름에 힘으로 잘 어울린다.

## 운봉 호쾌한 소리 동편제 고향 여원치 미륵이 된 주막여인 전설 황산 이성계가 왜구 물리친 곳 성리 쫓겨난 흥부 발복한 동네

한어름에도 무더위를 모르는 이 곳은 가을같이 또한 쌀라서 전라북도의 추수번지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고을을 주목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소리와 관련이 깊다. 동편제의 고향인 것이다.

발성이 가깝고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는 서편제와는 달리, 무거운 발성에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는 씩씩하고도 호쾌한 소리가 바로 동편제이다. 여기서 잠시 짚고 싶은 사실은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구분이 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가 동편제이고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가 서편제인 것이다. 그 기준이 산줄기임은 강조하기조차 새삼스럽다. 어쨌든 조선 순조 때의 명창인 송홍목으로부터 박만순, 송우룡, 송만갑으로 이어지는 동편제가 이곳 운봉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박초월(1915~1983) 명창이 태어나서 소리를 얻은(得聲) 곳도 이곳이다.

수정봉을 내려선 백두대간은 또 한번 자신의 허리를 뺏고 지나는 포경도로를 만나게 된다. 남원에서 운봉을 거쳐 함양으로 이어지는 24번 국도가 바로 그것인데, 백두대간을 넘는 고갯마루인 여원치(女院峙, 450)가 거기에 있다. 여기에 참으로 비극적인 전설이 여러 있으니, 잠깐 귀를 귀울여 보자. 왜구가 노략질을 일삼던 오랜 옛날, 꽃같이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주막을 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왜구 몇놈이 주모에게 달려드니, 차마 왜구의 노리개가 될 수 없었던 주모는 그만 자신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고 말았다. 훗날 사람들이 길가의 바위에 그녀의 모습을 새기니 미륵의 모습으로 현현하더라는 것이다.

내친 김에 한걸음 더 지난날로 돌아가 보자. 여원치를 넘어 곧장 나아가면 운봉읍의 머리를 되는 곳에 자리잡은 황산(黃山)을 만나게 된다.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될 기반을 마련해 준 황산대첩

(계백 장군과 관계 있는 황산벌은 논산에 있다.)의 현상이 바로 그곳이다. 고려 말기인 우왕 8년(1380) 8월, 500여척의 대선단으로 합입한 왜구는 충청, 전라, 경상 3도 연안을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최무선이 최초로 화포를 사용하여 함선을 모두 불태우는 전과를 올린다. 그러나 목숨을 구한 360여명의 왜구들은 육한 쪽으로 도주하여 이미 상륙한 왜구들과 합류한 뒤 더욱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북상하여 9월에는 운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바로 이 순간 왜장 이지발도와 이성계는 운봉적인 조우를 한다. 당연히 이지발도를 우두머리로 한 왜구는 섬멸되었고, 이지발도가 죽은 자리는 지금도 붉은 빛이 선연하여 피바위로 불리고 있다.

잠시 쉬어가자는 뜻이었는데 그만 잡담(?)이 길어졌다. 대간은 다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며 고남산을 향한다. 그러나 이렇게도 고남산 정상 부근에는 한국통신의 중계소가 과거스런 모습으로 버티고 앉아 사람의 흔적을 더욱 짙게 드러낸다. 휴대 전화기를 품어 지닌 채 그런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고는 한참이나 쓸쓸한 웃음을 흘려야 했다.

고남산에서 동쪽으로 발길을 돌린 백두대간은 버들재(柳峙)를 지나 매오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는 88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잠곡이 우거진 산기슭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여기서부터 반나절쯤 가쁜 숨을 토해내면 백재와 신리의 경계지였던 아막산성에 이를 수 있다. 이곳에서는 되도록 느긋하게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몸을 돌려세워 먼 산으로 눈길을 주면,

지나온 발걸음들은 지리산의 연봉이 되어 우뚝 솟고, 몸을 바로 세워 가야할 곳을 바라보면 봉화산, 백운산, 멀리 덕유산이 빨리 오라 손짓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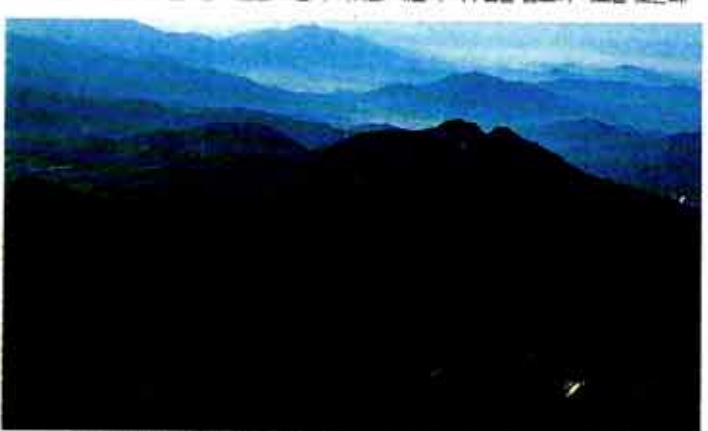
아막산성에서 계속 키를 낮춘 백두대간은 북성이재라는 고개를 지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마을 하나가 내려다보인다. '흥부마을'로 널리 알려진 남원시 아영면 성리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이곳을 흥부마을로 부르면 걸쭉 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남원시 동면 성산리 또한 흥부마을로 불리는 까닭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짐작대로 몇 년 전에는 원조 경명까지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마을의 다름은 아주 절묘한 방식으로 마무리를 한다. 삼판은 경희대학교 학술조사단, '93년에 남원시의 의뢰로 경희대 민속학 연구소에서 '흥부전'을 고증한 결과, 동면의 성산리는 흥부가 태어난 곳이고, 아영면의 성리는 흥부에게 쫓겨난 흥부가 발복한 곳이었다. 둘 다 흥부마을이라 불리도 안될 게 없는 셈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흥부가 태어난 곳은 흥부마을로 부르고 성리만을 흥부마을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연유가 어찌했건 태종과 놀부라고 부르는 데도 연유어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또 격벽은 얘기가 길어졌다. 어릴 수 없었다. 남원을 지나는 백두대간은 이리 저리 몸을 뒤돌며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소태기 사진가



대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인 고촌의 아이들. 대간의 마무늬를 밟으며 학교를 오간다.



고남산에서 오던길을 되짚어 보았다. 멀리 지리산의 봉우리들이 보인다.

##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존재의 위기에서 안정을 확보하였습니다.**

- IMF 환란으로 지난해 광고수입이 감소하여 (70%) 개국 8년만에 최악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 成樂承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80억원의 적자를 탈피하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후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은 공중파 방송언론사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생동감 넘치는 신선한 뉴스 프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다양한 교양 프로.
-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고 독특한 포교 방송으로 청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

◆ 후원회 ARS : (02)700-0108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529